

확대투사원리: 협의의 통사부 조건

김연승
(공주대학교)

Kim, Yeon-Seung. 2018. The EPP: A condition in narrow syntax.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2, 219-23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it clear that the EPP is a condition in narrow syntax. Against the argument that the EPP is a PF condition, three pieces of evidence are presented: anaphor binding, scope with regard to negative elements, and nominative Case checking. This paper has shown that all the pieces of evidence exploited for the PF condition analysis of the EPP can be reanalyzed and can be in full accord with the argument that the EPP is a condition in narrow syntax. Finally, we have illustrated that island repair in sluicing constructions cannot be crucial evidence for the PF condition analysis of the EPP, because the island repair can be solved in many other ways without resort to the PF condition analysis of the EPP.

Keywords: the EPP, island repair, MaxElide, sluicing, the subject condition, VP-ellipsis

1. 확대투사원리의 근원에 대한 제안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이후 EPP로 표기)가 어떤 자질 점검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고 협의의 통사부(narrow syntax)에서 TP/IP-Spec이 무엇인가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요건이라는 주장은 Chomsky(2000)와 Lasnik(2001a, 2001b) 이후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김연승 2002 참조).¹ 그러나 일부 학자들

¹ EPP는 다른 형식자질들과는 달리,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일치(Agree)라는 자질점검의 기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첫째, 다른 자질들의 경우 외현적 이동 없이도 일치가 이루어지지만, EPP 자질만큼은 반드시 외현적 이동을 유발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두 개의 같은 자질간의 대응(matching)을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EPP의 경우에는 대응 없이 단순히 TP의 지정어 위치가 뭔가에 의해 채워짐으로써 삭제된다. 따라서 Lasnik(2001a, 2001b)은 EPP는 필요하지만, 이는 결코 어떤 자질점검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점에서 EPP 요건(requirement)이라 부른다.

(Holmberg 2000, Merchant 2001, van Craenenbroeck and den Dikken 2006, Landau 2007, Abe 2015 등 참조)은 슬루싱(slucing) 같은 생략 현상 등 다양한 증거를 들어 EPP가 PF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즉, EPP가 PF 조건이라면, T(=I)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EPP를 만족시키기 위해 TP-Spec으로 무엇인가가 이동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생략이 PF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T의 EPP 자질은 PF에서 생략될 것이므로 TP-Spec이 무엇인가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는 EPP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외현적으로 TP-Spec으로의 명사구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EPP는 여전히 협의의 통사부에서 지켜져야 하는 요건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EPP가 PF 조건이라는 증거 및 반대 증거

2.1. 증거: 슬루싱에서의 주어 조건(subject condition) 위반

다음 예문들의 문법성 대조를 살펴보자.

- (1) a. *Which Marx brother_i is [a biography of t_i] going to appear/be published this year?
b. *Which Marx brother_i did [a biography of t_i] cause a scandal earlier this year?
- (2) a.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is going to appear/be published this year — guess which (Marx brother).
b.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caused a scandal earlier this year, but Bill doesn't recall which (Marx brother).

(van Craenenbroeck and den Dikken 2006: 654)

(1)의 예문들은 wh-구가 주어조건을 위반하여 이동하였으므로 비문이다. 그러나 (2)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슬루싱 구문에서는 주어조건을 위반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² 즉, VP내-주어(VP-internal subject)가 EPP 요건에 따라 TP-Spec으

² 이러한 주어조건의 위반은 다음과 같은 스프라우팅(sprouting) 구문에서도 문제를 일으

로 이동한다면, 나중에 의문사구(which (Marx brother))가 CP-Spec으로 이동할 때 주어조건을 위반하여 문제를 일으킴에도 (2)의 예문들이 정문이 된다. 이 이유에 대해 Merchant(2001)는 wh-구가 주어 위치(TP/IP-Spec)에서부터 이동한 것이 아니고, 다음 도출과정처럼, VP내 위치로부터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a.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is going to appear/be published this year—guess [_{CP} which (Marx brother)_i [_{IP} is [_{VP} going to be published a biography of t_i] this year]]].
- b.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caused a scandal earlier this year, but Bill doesn't recall [_{CP} which (Marx brother)_i [_{IP} I [_{VP} [a biography of t_i] caused a scandal earlier this year]]].

문제는 슬루싱 구문에서 주어가 TP-Spec으로 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VP내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에 대해 van Craenenbroeck와 den Dikken은 EPP는 PF 조건이어서 T가 삭제될 경우에는 VP내-주어가 TP-Spec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2)는 EPP가 PF 조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이용된다.

2.2. 반대증거

2.2.1. 대용어 결속

Lasnik과 Park(2003)은 다음 예를 들어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 (4) a. John proved three chapters to have been plagiarized with one convincing example each.
- b. ?*John proved that three chapters were plagiarized with one convincing example each.

키지 않는다.

- (i) Pictures were taken by Mary, but I don't know of whom.
 (ii) A biography was published by Abby. I wonder of whom.
 (Lasnik and Park 2003: 653)

c. ?*John proved there to have been three chapters plagiarized with one convincing example each.

(5) Three chapters were proven to be mistaken with one convincing example each, but I can't remember of which book.

(Lasnik and Park 2003: (22)–(23))

(4)에서 보듯이 대용어를 결속하기 위해서는 선행사가 주절로 상승해야만 한다. (4b, c)는 대용어 *each*의 선행사(three chapters)가 주절로 상승하지 않아 대용어가 선행사를 결속하지 못하므로 비문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5)는 *three chapters*가 대용어 *each*를 결속할 수 있으므로 주어(*three chapters of which book*)가 주절의 TP-Spec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주어명사구로부터 의문사구 이동이 적용되어 *of which book*이 CP-Spec으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TP 생략이 일어나는 슬루싱에서도 의문사구가 TP-Spec을 거쳐 CP-Spec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2.2.2. 부정어와의 작용역

다음 예들은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의 또 다른 반례이다.

(6) a. Many people weren't at the meeting. (Q>Neg)

b. There weren't many people at the meeting. (Neg>Q)

(7) a. Many pictures weren't displayed at the exhibit, but I don't know of whom.

b. Many chapters weren't proven to be mistaken. I will now tell you of which book. (Lasnik and Park 2003: (26)–(29))

(6)에서 보듯이 주어(*many people*)가 실제로 TP-Spec으로 이동한 경우만이 Q>Neg 해석을 갖는데, (7)은 모두 Q>Neg 해석을 가지므로 TP가 삭제되기 전에 의문사구 주어(*of whom, of which book*)가 TP-Spec으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7a)의 도출과정은 (8)이 아니라 (9)와 같다고 분석해야 한다.

(8) Many pictures weren't displayed at the exhibit, but I don't know [of

whom]₁, [_{IP} _____ weren't [many pictures t₁]₂ displayed t₂ at the exhibit].

- (9) Many pictures weren't displayed at the exhibit, but I don't know [of whom]₁ [_{IP} [many pictures t₁]₂ weren't displayed t₂ at the exhibit].

즉, 주어(*many pictures of whom*)가 TP-Spec으로 이동하여야만 양화사 *many*가 부정어 *not*보다 광영역(wide scope)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Lasnik과 Park(2003)은 EPP가 협의의 통사부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다음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하나의 구성소가 이동한 경우, 그 이동한 구성소로부터 일부 어구의 또 다른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10) a. I think that John never reads [reviews of his books].
 b. Whose books_i do you think that John never reads [reviews of t_i]?
 c. I think that [reviews of his books]_i John never reads t_i.
 d. *Whose books_j do you think that [reviews of t_j]_i John never reads t_i?
 (Corver 2006: (1))
- (11) a. [[Some people from Philadelphia] greeted me].
 b. [[Some people t_i] greeted me [from Philadelphia]_i].
 c. *[What city]_j did you expect [[some people t_i] to greet you [from t_j]_i]?
 (Corver 2006: (11))

위 예들은 원래 위치로부터의 의문사구 이동은 가능하나(즉, (10b)의 경우), 화제화나 외치 등을 통해 절 외곽(clause periphery)으로 이동한 어구로부터의 의문사구 이동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즉, (10d), (11c)의 경우).³ 도출된 위치로부터의 또 다른 이동에 대한 제약은 담화와 관련된 범주들(예를 들어, Wh, Foc, Topic 등)의 특성이다. Rizzi(2007)에 따르면, 이들 담화와 관련된 범주들의 한 가지 특성은 어떤 요소가 작용역 위치에 도달하면 그 위치에서 동결되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⁴ Rizzi(1997)는 문장의 구조적 층위(layer)를 어휘적 층위, 굴

³ 도출된 위치로부터의 이동상의 제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Corver(2006)와 Culicover와 Winkler(2010) 참조.

⁴ Rizzi(1997, 2001)는 절 외곽에 C 이외에 Force, Int(errogative), Focus 등 다양한 기능범주의

절 층위, 보문소 층위 세 층위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층위는 VP, IP, CP에 해당한다. 각 층위 내에서의 이동은 문제가 되지만, 층위를 넘어서는 층위간 이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11)에서 문제가 되는 이동은 보문소 층위(=CP) 내에서 이동이 일어난 층위내 이동의 경우이다. 그러나 (9)의 의문사구이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IP 내부(=굴절 층위)로부터 절 외곽(보문소 층위)으로의 층위간 이동이기 때문이다.

2.2.3. 주격 점검

Merchant(2007: 273)는 슬루싱에 대한 삭제분석의 증거로, 슬루싱 구문의 의문사구가 생략되지 않은 구문의 의문사구와 같은 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 (12) Er will jemandom schmeicheln, aber sie wissen nicht, *wer/*wen/wem.
 he wants someone.DAT flatter but they know not who.NOM who.ACC who.DAT
 'He wants to flatter someone, but they don't know who.'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슬루싱 구문에서 TP의 생략 전에 CP-Spec으로 이동한 의문사구의 격은 생략이 일어나지 않은 구문의 의문사구의 격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것은 슬루싱 구문에서의 의문명사구는 TP생략이 일어나기 전에 격점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예문에서 *wem*만이 가능하고 *wer*, *wen*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Chomsky(2000)에 따르면, 일치란 자질대응(feature matching)하에 탐침(probe)과 목표(goal)의 비해석성 자질의 값을 정해 삭제하는 과정이다.⁵ 따라서 비해석성 자질은 EPP가 요구하지 않은 한, 범주의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러한 기제에 따라 *there*구문에서 T와 관련명사구(associated NP) 사이의 장거리일치가 *there*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6 7}

설정이 필요하다는 세분화된 CP 구조(articulated CP structure)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⁵ Chomsky(2000: 122)는 자질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i) Matching
 a. Matching is feature identity.
 b. D(P) is the sister of P.
 c. Locality reduces to "closest c-command."

⁶ 관련 명사구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는 'notional subject,' 'pivot,' 'post-verbal NP,' 'displa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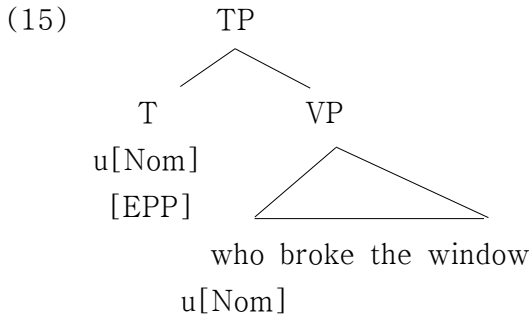
- (13) a. There was/*were elected an unpopular candidate.
- b. There seems/*seem to have been elected an unpopular candidate.

Chomsky는 관련 명사구의 비해석성 격자질이 이러한 일치를 통해 삭제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러한 격점검 방식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문들에서 의문사구 *who*가 어떻게 격점검되는지 살펴보자.

- (14) a. Someone broke the window, but I don't know who.
- b. Who broke the window?

여기에서 *who*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격점검이 이루어진다.



일치를 통해 T와 *who*의 비해석성 주격자질(u[Nom])이 삭제될 때, T의 EPP 때문에 *who*는 TP-Spec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만약 EPP가 비해석성 격자질의 점검과 동시에 작동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작동한다면, VP내-주어는 모든 경우에 결코 더 이상의 A-이동을 겪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격자질이 점검된 VP내-주

subject' 등 여러 용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말 용어로도 '제휴어', '의미상주어'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명사구'로 통일시켜 사용한다.

⁷ 물론 *there*구문에서 격점검자와 관련 명사구의 직접연관에 의한 자질점검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i) [For there unexpectedly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is unlikely.
- (ii) *[For unexpectedly there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is unlikely.

Hazout(2004: 338)은, 만약 위 예문에서 관련 명사구가 *for*와의 장거리 직접연관에 의해 격점검된다면 왜 (ii)에서만 *unexpectedly*가 방해 역할을 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어는 더 이상 비해석성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⁸ 그 자리에서 동결되어 이후의 어떤 A-이동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14)의 *who*는 (16a)가 아니라 (16b)와 같은 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16) a. [_{CP} *who* [_{TP}[EPP] [_{VP} ~~*who*~~ broke the window]]]
 b. [_{CP} *who* [_{TP} ~~*who*~~ [_{VP} ~~*who*~~ broke the window]]]

물론 (16a)와 같은 도출의 경우에도, (14a)처럼 TP가 생략되는 경우에 EPP가 PF 조건이라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14b)처럼 TP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에는 EPP가 만족되지 않아, (14b)가 비문으로 잘못 예측되는 문제가 생긴다.¹⁰

이와 같은 분석이 옳다면, EPP는 PF 조건이라서 TP가 생략되는 슬루싱 구문에서 TP-Spec으로의 이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또 다른 반박: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2006)

3.1. 구의 비외현적(covert) 이동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2006: 656)은 슬루싱 구문에서의 의문사구가 IP-Spec으로의 이동 없이 바로 CP-Spec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⁸ 명사구가 가진 비해석성 자질은 격자질 뿐이다. 성·수·인칭의 일치자질은 해석성 자질이다.

⁹ Bošković(2007)는 이동하는 요소가 자신의 비해석성 자질(즉, 격자질)의 점검을 위해 스스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Bošković는 EPP를 없애고 비해석성 자질의 점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함으로써, 격자질이 어떻게 스스로 이동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즉, 명사구 이동의 동인은 EPP가 아니라 그 명사구가 가진 격자질 자체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동의 동인으로 EPP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Chomsky(2000, 2001)와 Lasnik(2001a, 2001b)의 입장을 따른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 채택되든 본 논문의 주된 주장(즉, VP내-주어는 항상 TP-Spec으로 이동한다.)은 유지될 수 있다.

¹⁰ 우리는 (16a)와 같은 도출에서 *who*의 VP-Spec으로부터 CP-Spec으로의 이동은 중간의 TP-Spec을 들르지 않고 바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CP-Spec으로 *who*의 이동을 유발하는 유발자는 기능범주 C의 어떤 강자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종속절 의문사가 종속절 CP-Spec으로부터 주절 CP-Spec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과 같다.

(i) [_{CP} *Who*_i do you think [_{CP} *t*_i that John loves *t*_i]]?

도출 과정을 제시한다.

- (17) a. Five pictures of one of the victims weren't distributed to the press, but Bill can't remember which one_i [_{IP} weren't [_{VP} distributed [five pictures of t_i] to the press]].
- b. [Every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_i seemed to its_i author to be definitive, but Bill doesn't remember (of) which (Marx brother)_j [_{IP} I [_{VP} seemed to its_i author to be [every biography of t_j]_i definitive]].

그런데 의미적으로 (17a)에서는 주어(*five pictures of which one*)가 *not*에 대해 광영역을 가질 수 있고, (17b)에서는 *its*가 주어(*every biography of which Marx brother*)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variable)의 뜻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주어가 *not*이나 결속변항 *its*보다 상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7)과 같은 도출을 제시하는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의 분석에서는 주어가 *not*이나 결속변항 *its*보다 오히려 하위에 위치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2006: 656)은, 슬루싱 구문의 주어는 IP-Spec으로 비외현적 구이동을 한다는 Merchant(2001)의 주장을 받아들여, “IP가 존재할 때에는 IP-Spec이 주어의 비외현적 A-이동의 착지점(landing site)으로 이용될 수 있다(With IP present in the structure, its specifier position could be exploited as a landing site for covert A-movement of the subject.)”고 주장한다. 즉, VP내-주어가 비외현적 이동을 통해 IP-Spec으로 이동하고, 이 이동한 위치에서 *not*이나 *its*를 c-통어(c-command)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널리 받아들여진 EPP 이외에도 이동의 또 다른 동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비외현적 이동의 동인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모든 이동은 동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이동의 동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비외현적 구이동은 받아들이기 어렵다.¹¹ 심지어 자질도 일치를 통

¹¹ LF에서의 비외현적 구이동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음과 같은 *there* 구문이다.

(i) There seem to me to be some applicants eligible for the job.
그러나 den Dikken(1995)에 따르면, 관련 명사구(*some applicants*)가 LF에서 이동하여 *there*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은 문제가 있다. 비외현적 구이동의 또 다른 예로 양화사 이동(quantifier

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점검될 수 있다는 Chomsky(2000, 2001, 2005)의 주장을 고려해 보건데, 구의 비외현적 이동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¹² 의미해석을 위해 주어는 결국 IP-Spec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EPP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비외현적 이동을 설정하는 것보다 EPP에 의한 외현적 이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절에서 논의되듯이, 슬루싱 구문에서 의문사구 이동이 주어조건을 위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방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가 비외현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르면, (17a)에서 의문사구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which one*이 TP-삭제가 적용되기 전에 TP-Spec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 부정 극어(NPI: Negative Polarity Item)와 주어의 연관성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의 또 다른 증거로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2006: 657)은 다음 예문들의 문법성 대조를 제시한다.

- (18) a. What didn't work was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b. What didn't work? –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19)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didn't work.

(18a)와 같은 유사분열문(pseudoclefts)이나 (18b)와 같은 질문-대답 쌍

raising)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양화사 이동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¹² 다음 예문들은 격과 일치(agreement) 자질 이외의 다른 자질들은 비외현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i) a. The DA proved [two men to have been at the scene] during each other's trials.
 b. *The DA proved [there to have been two men at the scene] during each other's trials.
 (ii) a. The DA proved [no one to have been at the scene] during any of the trials.
 b. *The DA proved [there to be no one at the scene] during any of the trials.
 (iii) a. Some linguists seem to each other to have been given good job offers.
 b. *There seem to each other to have been some linguists given good job offers.

(Lasnik 1999: 137–138)

만약 부정과 지시에 관련된 자질들이 비외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b) 예문들은 모두 정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질의 비외현적 이동조차 매우 제약적인 상황에서 범주의 비외현적 이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question-answer pairs)은 부정 극어 *any*가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 (c-command)되지 않음에도 정문이다.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를 일종의 확장된 절구조(IP/TP)로 분석하고, 이 구조에서 생략을 통해 주어만 남은 경우라고 주장한다. 즉, (20)과 같은 표시를 제안한다.

(20) [_{IP} I-Neg [_{VP}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work]]

여기에서 VP내-주어(*any of the printing equipment*)는 IP-Spec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즉, VP내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석되어야만 *any*가 부정어에 의해 성분통어 되어야 한다는 NPI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문 (19)는 주어가 IP-Spec으로 이동한 경우이므로 NPI 조건을 위배하여 비문이 된다. 따라서 van Craenenbroeck과 den Dikken(2006)은, den Dikken et al.(2000)의 주장을 받아들여,¹³ (20)에서 I가 생략됨으로써 주어가 IP-Spec으로 이동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EPP가 PF 조건이라는 결론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어떻게 (20)과 같은 생략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구성소만이 한 번에 생략될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생략은 가능하지 않다.¹⁴ 가능한 분석은 생략이 아니라 해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유사분열문이나 질문-대답 쌍의 경우 앞 절의 부정어 *not*이 해석을 통해 서술부분에 복사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18)은 각각 LF에서 다음과 같은 도출 과정을 겪는다.

(21) a. What didn't work was [not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 *not* 복사

b. What didn't work? - [not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 *not* 복사

¹³ Den Dikken et al.(2000: sec. 2.4)은 I가 생략되는 절의 주어는 IP-Spec으로 유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¹⁴ 굳이 가능한 방법을 찾자면, 다음처럼 주어만이 우향 이동을 겪고 IP 전체가 생략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i) [_{IP} I-Neg [_{VP} t_i work]]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그러나 이 분석 방법도 주어의 우향 이동의 동인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21)과 같은 표시에서 *any*는 NPI를 만족시키므로 (18)의 예문들이 정문이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¹⁵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18)은 다음과 같이 부정어 *not*이 복사된 LF표시에서 *any*가 NPI를 만족시키게 된다.

(22) [Not [any of the printing equipment]]

반면에 실제 TP/IP-Spec으로 명사구이동이 일어난 (19)는 NPI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비문이 된다. 결론적으로 (18)-(19)의 문법성 대조도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4. 주어섭 제약과 슬루싱

앞서 언급하였듯이,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은 주로 슬루싱 구문에서 의문사 구이동이 주어 조건(=주어섭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슬루싱에서 주어섭 제약이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EPP가 PF 조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이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슬루싱에서는 주어섭 제약뿐만 아니라 복합명사구 제약과 같은 다른 섭제약도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23) They want to hire someone who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know which (Balkan language) [_{IP} they want to hire [_{DP} someone who speaks t]]

(24) They heard a lecture about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know which Balkan language [_{IP} they heard [_{DP} a lecture about t]]

(Lasnik 2001c: (35), (73))

¹⁵ 문제는 LF에서의 *not*-복사의 원칙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¹⁶ 스프라우팅도 의문사구 이동 후 TP 생략에 의해 생성된다면, 다음 예들은 슬루싱이 wh-섭 제약도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 The Deans know who resigned, but they're not sure for what reasons [~~who resigned~~].

(ii) He told us which kids were eating, but he couldn't tell us how much [~~which kids were eating~~]. (Chung et al. 2011:45)

따라서 슬루싱에서는 섬위반 보정(island repair)이 가능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슬루싱에서 섬위반 보정이 가능하다면, (2)에서 *a biography of which Marx brother*가 VP내에서부터 TP-Spec으로 이동한 다음 *which Marx brother*만이 CP-Spec으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더라도 섬위반 보정을 통해 정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EPP가 PF 조건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슬루싱에서 어떻게 섬위반 보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다. 첫 번째로 Merchant(2001)는, 주어섬 제약 위반과는 달리 wh-섬제약 위반의 경우, wh-이동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섬을 넘어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23)이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 (25) They want to hire someone who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know which (Balkan language) [_{IP} she should speak t]

둘째, 분열문(cleft sentence)을 슬루싱의 기저구조로 사용함으로써 섬제약을 위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den Dikken et al. 2000, van Craenenbroeck 2010 참조). 즉, 다음 (26)의 기저구조로 (27a)뿐만 아니라 (27b)도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26) John saw someone, but I don't know who.
 (27) a. John saw someone, but I don't know who <John saw>.
 b. John saw someone, but I don't know who <it was>.

van Craenenbroeck(2010)은 슬루싱에서 (27a)와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기저구조이지만, 도출과정이 섬제약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last resort)으로 (27b)와 같은 분열구조가 기저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van Craenenbroeck(2010)의 주장이 옳다면, (2)의 예문들도 다음과 같은 분열구조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¹⁷ 물론 Merchant(2001)는 분열문이 슬루싱의 기저구조로 이용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만, van Craenenbroeck(2010)이 지적하듯이, 이중 4가지 증거는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8) a.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is going to appear/be published this year — guess which (Marx brother)_i [it is t_i].
- b. A biography of one of the Marx brothers caused a scandal earlier this year, but Bill doesn't recall which (Marx brother)_i [it was t_i].

이와 같이 변형된 구조를 슬루싱의 기저구조로 인정한다면, EPP를 PF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2)의 예문들이 주어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슬루싱에 대한 해석분석을 받아들여야 하면 (Lobeck(1995), Chung et al.(1995, 2001) 참조), 섬위반 보정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해석분석에서는 삭제분석과 달리 LF에서 해석을 통해 선행하는 TP의 정보가 복원된다. 즉, (26)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29) John saw someone, but I don't know who < >.

즉, 종속절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의문사구 이외의 어떤 요소도 병합되지 않았고, LF에서 해석을 통해 앞 절의 [TP John saw someone]이 복사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해석분석에서는 섬위반 보정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섬제약은 이동에 대한 제약이고 어떤 의문사구 이동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⁸

Chung et al.(2011)은 적어도 스프라우팅의 경우에는 삭제분석보다는 해석분석이 훨씬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다음 스프라우팅 예문 (30)을 (31)과 같이 분석한다.

- (30) They were firing, but at what was unclear.
- (31) a. They were firing, but [CP at what [TP]] was unclear.
- b. [CP at what [TP they were firing]] ← (LF) copying
- c. [CP at what [TP they were firing at what]] ← wh-phrase lowering¹⁹

¹⁸ 슬루싱 구문에서 wh-이동이 섬제약을 위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Fox와 Lasnik(2003) 참조.

¹⁹ Chung et al.(2011)은 자질점검이 지정어-핵 일치기 아니라 성분통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의문사구의 [+wh]자질이 C의 [+wh]자질에 의해 점검되기 위해서는 의문사구가 C의 성분통어 영역, 즉 TP내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분석이 옳다면, EPP를 PF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2)의 예문들이 섬제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한 (2)와 같은 예들이 EPP가 PF 조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²⁰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섬위반 보정이 과연 보편적 전략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섬제약을 위반하지 않아도 여전히 비문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섬위반 보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

- (32) a. ?*They don't speak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remember which.
 b. ?*No student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remember which.
 (Lasnik 2001c: (47)–(48))

- (33) a. *The detecti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Fred killed ABBY, but I don't know who else_i [the detecti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Fred killed t_i]
 (Fox and Lasnik 2003: 152)
 b. *Abby wants to hire someone who speaks GREEK, but I don't remember what other languages_i [she wants to hire someone who speaks t_i]
 (Merchant 2008: 148)

(32)는 섬제약 위반이 전혀 없음에도 비문이 되는 경우이다. (33)은 *ABBY*와 *GREEK*이 각각 *who else*와 *what other languages*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섬위반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섬위반 보정이라는 전략에 대한 의구심은, 슬루싱 구문과 달리 VP-생략 구문에서는 섬위반 보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된다. 다음 예문들은 슬루싱 구문과 VP-생략 구문의 섬위반 보정 면에서의 차이를 잘 드러낸다.²¹

- (34) a. *They want to hire someone who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know which they do. → VP-deletion

²⁰ 슬루싱 구문에 다양한 분석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위해서는 Merchant(2007) 참조.

²¹ 이러한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분석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안은 찾기 어렵다. 여러 제안 중 Fox와 Lasnik(2003), Merchant(2008), Chung et al.(1995, 2011), Abe(2012) 등이 언급할 만하다.

- b. They want to hire someone who speaks a Balkan language,
but I don't know which. → sluicing
- (35) a. *It appears that a certain senator will resign, but which senator it
does [appear that t will resign] is a secret. [*that*-trace] → VP-deletion
b. It appears that a certain senator will resign, but which senator [it
appears that t will resign] is a secret. [*that*-trace] → sluicing
- (36) a. *Sally asked if somebody was going to fail Syntax One, but I can't
remember who she did [ask if t was going to fail Syntax One].
[*if*-trace] → VP-deletion
b. Sally asked if somebody was going to fail Syntax One, but I can't
remember who [she asked if t was going to fail Syntax One].
[*if*-trace] → sluicing

(Lasnik 2001c: 14-18)

VP-생략 구문은 섬위반 보정이라는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문인 이유에 대해 Merchant(2008)는 최대삭제 원칙(MaxElide)을 제시한다.²² 이 원칙은 가능한 한 보다 큰 범주를 삭제하라는 것이다. 즉, VP를 포함하는 보다 큰 범주 TP의 생략도 가능한 경우에는 VP만의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대삭제 원칙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 (37) a. *Mary claimed that John left for some reason, but I don't know
exactly why [Mary claimed [that John left t]] → sluicing
b. *Mary claimed that John left for some reason, but I don't know
exactly why she did claim [that John left t] → VP-deletion

(Abe 2012: 60-61)

위 예문들은 VP-생략 구문뿐만 아니라 최대삭제 원칙이 적용된 슬루싱 구문도 여전히 비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가 슬루싱 구문과 VP-생략 구문의 여러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큰 그림을 아직 그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²² MaxElide: Let XP be an elided constituent containing an A'-trace. Let YP be a possible target for deletion. YP must not properly contain XP(XP ⊄ YP). Merchant(2008: 141)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슬루싱 구문에서 의문사구 이동이 주어조건을 위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생략되는 TP는 TP-Spec으로의 주어 이동을 유발하지 않고 따라서 EPP는 PF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EPP가 협의의 통사부 조건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Lasnik과 Park(2003)의 주장대로, 대용어 결속 및 부정어와의 작용역 현상을 고려해볼 때 TP생략이 적용되는 슬루싱 구문에서도 VP내-주어는 TP-Spec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치 일반원칙에 따라, VP내-주어는 격점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EPP에 의해 TP-Spec으로 이동하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슬루싱 구문에서의 의문사구가 IP-Spec으로의 이동 없이 바로 CP-Spec으로 이동한다는 van Craenenbroeck와 den Dikken(2006: 656)의 주장은 구의 비외현적 이동이라는 추가적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사분열문이나 질문-대답 쌍에서의 부정 극어 결속현상에 근거해 VP내-주어가 TP-Spec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유사분열문의 *be*동사 다음 부분이나 질문-대답 쌍의 대답 부분을 절(TP)이 아니라 확대된 XP 구조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PP가 PF 조건이라는 주장은 주로 슬루싱 구문에서 의문사구 이동이 주어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슬루싱 구문에서 의문사구 이동은 주어섭 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섭제약을 위반할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이 섭위반 보정이라는 전략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EPP가 PF 조건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이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EPP는 여전히 협의의 통사부 조건이고 VP내-주어는 PF에서의 생략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TP-Spec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많은 다른 결정적 증거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연승(Kim, Y-S.). 2002. 확대투사원리와 격점검(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case checking). 《언어연구》(*Studies in Language*) 18(2), 21-42.
- Abe, J. 2012. What differentiates VP ellipsis from sluicing in island repair. Ms.
- Abe, J. 2015. The EPP and subject extraction. *Lingua* 159, 1-17.
- Bošković, Ž. 2007. On the locality and motivation of Move and Agree: An even more minimal theory. *Linguistic Inquiry* 38, 589-644.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m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s., MIT.
- Chomsky, N. 2005. Three factors in the design of language. *Linguistic Inquiry* 36, 1-22.
- Chung, S., W. Ladusaw and J. McCloskey. 1995. Sluicing and logical form. *Natural Language Semantics* 3, 239-282.
- Chung, S., W. Ladusaw and J. McCloskey. 2011. Sluicing(:) Between structure and inference. In R. Gutierrez-Bravo, L. Mikkelsen, and E. Potsdam, eds., *Representing Language: Essays in Honor of Judith Aissen*, 31-50. Santa Cruz, CA.: Linguistics Research Center.
- Corver, N. 2006. Freezing effects. In M. Everaert and H. van Riemsdijk,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383-406. Malden, MA: Blackwell.
- Craenenbroeck, J. van. 2010. Invisible last resort: A note on clefts as the underlying source for sluicing. *Lingua* 120, 1714-1726.
- Craenenbroeck, J. van and M. den Dikken. 2006. Ellipsis and EPP repair. *Linguistic Inquiry* 44, 653-662.
- Culicover, P. W. and S. Winkler 2010. Freezing: A conspiracy. Ms.
- Dikken, M. den. 1995. Binding, expletives, and levels. *Linguistic Inquiry* 26, 347-354.
- Dikken, M. den, A. Meinunger and C. Wilder. 2000. Pseudoclefts and ellipsis. *Studia Linguistica* 54, 41-89.
- Fox, D. and H. Lasnik. 2003. Successive-cyclic movement and island repair: The difference between sluicing and VP-ellipsis. *Linguistic Inquiry* 34, 143-154.
- Hazout, I. 2004. Long-distance agreement and the syntax of *for-to* infinitives. *Linguistic Inquiry* 35, 338-343.
- Holmberg, A. 2000. Scandinavian stylistic fronting: How many categories can

- become an expletive. *Linguistic Inquiry* 31, 445–483.
- Landau, I. 2007. EPP extensions. *Linguistic Inquiry* 38, 485–523.
- Lasnik, H. 1999. *Minimalist Analysis*. Oxford: Blackwell.
- Lasnik, H. 2001a. A note on the EPP. *Linguistic Inquiry* 32, 356–362.
- Lasnik, H. 2001b. Subjects, objects, and the EPP. In W. D. Davies and S. Dubinsky, eds., *Objects and Other Subjects: Grammatical Functions, Functional Categories, and Configurationality*, 103–121. Dordrecht: Kluwer.
- Lasnik, H. 2001c. When can you save a structure by destroying it? *NELS* 31, 301–320.
- Lasnik, H. and Myung-Kwan Park. 2003. The EPP and the subject condition under sluicing. *Linguistic Inquiry* 34, 649–660.
- Lobeck, A. 1995. *Ellipsis: Functional Heads, Licensing, and Iden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chant, J. 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chant, J. 2007. Sluicing. In M. Everaert and H. van Riemsdijk,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IV*. 271–291, Malden, MA: Blackwell.
- Merchant, J. 2008. Variable island repair under ellipsis. In K. Johnson, ed., *Topics in Ellipsis*, 132–15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A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281–337. Dordrecht: Kluwer.
- Rizzi, L. 2001. On the position "int(errogative)" in the left periphery of the clause. In G. Cinque and G. Salvi, eds., *Current Studies in Italian Syntax: Essays Offered to Lorenzo Renzi*, 267–296. Amsterdam: Elsevier.
- Rizzi, L. 2007. On some properties of criterial freezing. *CISCL Working Papers*. 145–158.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성인(Tertiary)

김연승

공주대학교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 850-8362

E-mail: yskim@kongju.ac.kr

논문 접수(Received): 2018년 4월 30일

논문 수정(Revised): 2018년 6월 10일

게재 결정(Accepted): 2018년 6월 25일